

약물 보관·취급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 사례

특정 약물 투여 이후
여러 환자에서 이상반응 발생



✓ 감염발생 과정

특정 약물(주사제)를 미리 주사기에 채어 놓고
장시간 상온 방치

✓ 핵심 원인

- 약물을 장시간 보관하는 사전 분주 관행
- 약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관 온도·시간 관리 미흡
- 투약 준비 단계의 무균술 미준수

핵심 실천수칙 4 ✓

주사제 준비 후 즉시 투여

- 주사제 사전 준비 지양 : 환자 투여 직전에 준비하며, 미리 만들어두지 않음
- 1시간 원칙 : 준비된 약물은 1시간 이내에 투여를 완료
- 잔량 폐기 : 일회용 바이알(특히 지질 유제)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잔량은 폐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감염관리 핵심 실천 수칙

1 하나의 주사기, 하나의 주삿바늘, 한 번의 사용(One&Only)

- 주사기와 주삿바늘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은 안돼요.

one needle, one syringe, one time



2 투약 준비 구역의 '청결 구역' 지정

- 오염 구역(세척대, 화장실 등)과
분리된 전용 준비 공간이 필요해요.
- 주사제 준비 전
반드시 손 위생을 수행해 주세요.



3 환경 관리 및 기구 위험도에 따른 소독·멸균

- 다빈도 접촉 표면은 매일,
재사용 의료기구는 사용 시 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독·멸균해 주세요.



4 주사제 준비 후 즉시 투여

- 주사제는 환자 투여 직전에 준비해요.
- 미리 주사기에 채어 놓는(Pre-filling)
행위는 안돼요.
- 특히 프로포폴 등 지질 유제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잔량은 전량 폐기해 주세요.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

주요 사례에서 배우는
환자 안전의 기본 원칙



주사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

수차례 영양 수액을 맞은 환자군에서
C형 간염 집단감염 확인



✓ 감염발생 과정

주사준비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수액 라인을 통한 오염된 주사기의 반복 주입

✓ 핵심 원인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안전 주사 원칙 미준수
- 주사기·바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시술 방식
- 주사액 혼합·관리 과정의 무균술 미흡
- 표준지침 미준수의 일상화로 집단 노출 가능성 증가

핵심 실천 수칙 1 ✓

하나의 주사기, 하나의 주삿바늘, 한 번의 사용(One&Only)

- 주사기·바늘은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
- 수액 라인에 연결했던 주사기는 이미 오염된 것으로 간주(재사용 금지)
- 바늘만 교체하여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 금지

투약 준비 환경 오염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

주사 투여 후 여러 환자에서
유사한 이상반응 발생



✓ 감염발생 과정

오염된 투약 준비대(선반)에서 수액 조제,
환경 상재균 *Serratia marcescens*이 주사제로 혼입

✓ 핵심 원인

- 투약 준비 공간의 환경관리 미흡
- 작업대·보관 선반 등 표면 오염
- 손 위생 및 청결 구역 내 작업 절차의 불완전

핵심 실천 수칙 2 ✓

투약 준비 구역의 '청결 구역' 지정

- 청결 구역 지정 : 오염원(세척대, 화장실, 검체)과 분리된 전용 준비 공간 확보
- 환경관리 : 준비 전 작업대 소독, 손 씻기 싱크대와 물리적 거리 유지(물 튀김 방지)
- 손 위생 : 주사제 준비 전, 장갑 착용 전 반드시 손 씻기

재사용 의료기구의 부적절한 소독·멸균으로 발생한 사례

다수 의원·한의원에서 발생한 피부 연조직 감염



✓ 감염발생 과정

침, 물리치료기, 뼈주사 시술 시 오염된 재사용 기구
사용

✓ 핵심 원인

- 재사용 의료기구의 소독·멸균 절차 미준수
- 의료기구 위험도 분류 기준에 따른 적정 수준 소독·멸균 불이행

핵심 실천 수칙 3 ✓

환경 관리 및 기구 위험도에 따른 소독·멸균

- 고위험 기구(혈관·무균조직 접촉) : 반드시 '멸균'(예 : 수술 기구)
- 중위험 기구(점막·손상 피부 접촉) :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 (예 : 내시경)
- 비위험 기구(손상 없는 피부) : '낮은 수준 소독'(예 : 혈압계 커프, 청진기)